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제주도

부처합동사업 정보 부재·부서 간 협조 부족 시범사업 고배
잠녀·문화 세계화 사업 역할 분담 미흡으로 후속 작업 지연 등

등록 : 2012년 05월 24일 (목) 03:07:24 | 승인 : 2012년 05월 24일 (목) 03:07:31
최종수정 : 2012년 05월 24일 (목) 03:07:24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 마인드 부재가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확정 발표된 2012년도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 시범사업에 제주지역 마을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희망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공동 지원하는 이 사업은 '풍물'이라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농산어촌 공동체 문화를 복원한다는 취지에서 시도됐다. 짧은 공모 기간에도 불구하고 풍물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등의 이점으로 전국에서 134개 마을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제주에서도 3개 마을이 도전장을 냈지만 최종 40개 마을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심사과정에서 4대강 유역 마을을 우선 배려하는 등 불리한 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보는 물론 기획·추진력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부각됐다.

도는 사업 공모와 관련해 행정시를 통해 각 읍·면·동에 신청 안내만 보냈을 뿐 어떤 마을이 어떤 내용을 참가 신청을 냈는지 여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사업 주관인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한다는 이유로 문화정책과에만 해당 공문이 전달, 농업정책과나 향토자원과, 마을발전과 등 이들 사업과 연관성을 가진 부서들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서 타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읍·면·동별 풍물패를 만들어놓고 '결궁'을 제주 특유 민속 문화라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 행사 동원 용도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잠녀·잠녀문화 세계화 계획 추진에서도 부서간 공조 미흡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사업 주관인 해양개발과지만 문화재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정책과가 담당하면서 문화콘텐츠 개발 등 일련의 사업 진행에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예정이던 잠녀 문화 중 하나인 불턱과 해신당에 대한 조사 용역은 관련 예산까지 확보하고도 올해로 미뤄졌다. 당초 해녀박물관(해양개발과)을 주축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결국 문화재계(문화정책과)로 공이 넘겨지며 이달 말에야 용역 계약심의위가 열리는 되면서 후속 작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주변에서는 “도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부처간 합동 사업이나 복합 테마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도 내부 공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